

연구보고서 KU-CR-07-13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수탁연구과제결과보고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ædia Britannica)
한국 역사 관련 항목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KU-CR-07-1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ædia Britannica)
한국 역사 관련 항목 검토

연구책임자 : 양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연구는 **외국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수탁 연구과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한국 관련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5
III. 결론 및 평가.....	11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나날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여전히 한국전쟁 전후의 매우 빈곤하고, 무력하며,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또한 자신들의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한일 관련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이처럼 왜곡된 역사인식이 다른 나라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한국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사업을 정부 주도로 시작하게 되었다.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한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서 발견되는 오류는 시정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려는 것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그간 사업을 분석해보면 외국 교과서 상의 한국에 대한 오류나 오해, 부정확함 등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학자를 육성하거나,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매우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투자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다른 하나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해외의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오류시정 사업을 시행해온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의 오류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교과서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발간되는 한국 소개 자료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셋째는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의 신빙성, 혹은 권위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한국 관련 항목들을 분석하여 오류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백과사전을 참고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미국 혹은 영국에서 출판된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Encyclopædia Britannica)의 한국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이 사전은 최초의 참고도서로 1768년에 처음 출판된 이래 300년여의 역사 동안 꾸준히 개정을 거듭하면서 최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자 브리태니커는 세계 각국에 자국어로 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교육 자료들을 출판하게 되는데,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의 국가를 포함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브리태니커 CD-Rom을 이용해서 한국 관련 항목들을 찾아보았다. 남한(South Korea)를 입력했을 때 검색되는 항목 수는 18,403개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표제어들은 상호 참조 형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표제어들도 많았다. 결국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관련 항목들은 몇 가지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선 역사 관련 항목들이 있었다. ‘한국의 역사’라는 긴 항목이 있었고, 삼국과 고려, 조선을 비롯한 역대 왕조들은 독립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상의 주요 사건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청일전쟁’ 등이 있었고, 주요 기관들, 예컨대, ‘성균관’, ‘신간회’ 등이 있으며, 그리고 인물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리 관련 항목들이 있었다. 한국의 기후, 산, 강, 각 지방의 특징을 다룬 항목들이 이에 해당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항목들이 있었다. 한국의 문학, 회화, 서예, 음악 등을 다룬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관련 항목을 전부 분석하는 것은 일 년간의 과제로는 분량이 너무 많고,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연구자 1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역사 관련 항목만을 다루게 된 것이다.

2007년 과제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는 역사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서울’, ‘한국의 불교’, ‘한국의 유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울’은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판단하여 첫 해 과제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한국의 불교, 유교 등의 항목은 그 성격상 역사적 사실이 서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한국의 역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올해 과제에서 다룬 총 항목 수는 90개였다.

각 항목의 제목은 영문판 브리태니커에서 사용한 그대로를 앞에 쓰고, 뒤의 괄호 안에 한국어 번역어를 첨가했다. 때때로 원래 제목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었지만, 원문과의 대조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했다. 예를 들면, 조선

말기의 대표적 화가 중 한 명인 허련은 원문에 Ho Ryong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허련과는 매우 거리가 먼 표기이지만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그 표기를 사용해야 했다. 다음으로 해당 항목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분석, 어떤 내용이 있으며, 서술 경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리고 명백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한글의 알파벳 표기법이였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통일된 표기법을 제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미 각국에서는 여전히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매킨-라이샤워 (McCune-Reischauer)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도 MR 방식에 따라 오류 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백한 오류라고 보긴 어렵지만, 기존 브리태니커의 서술이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 다수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이 부분은 그 분야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II. 한국 관련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Kaya (가야)

내용분석

가야 또는 가락으로 칭해지며 연맹(confederation)의 창설연대는 42년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리적 조건상 주로 중국이나 왜와 교역을 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 시에는 일본에게 원조를 청했다고 나와 있다. 신라에 뒤지지 않는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질그릇 및 가야금의 발명과 우륵이 언급되어 있다. 백제와 신라의 견제 속에 중앙집권국가로 성숙하지 못했으며 신라에 의해 562년에 멸망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류

- Mount Chii -> Mount Chiri
- kayagum -> kayagŭm
- U Ruk -> U Rŭk
- Mimana -> Imna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가야의 부족연맹 (tribal league)은 3세기 이전에, 가야연맹 (confederation)은 확실치 않으나 42년에 창설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한국판 브리태니커에서 이를 기원전후 시기로 서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가야연맹의 변천이나 맹주국에 대한 언급 없이 가야, 가락, 또는 미마나 (Mimana)라는 명칭 소개로 정치사를 대신하고 있다. 미마나는 임나를 일본 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임나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광개토왕릉비

와 『삼국사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사료에서는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김해 가락국이나 고려 대가야 등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가야계 제국의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야가 한국의 고대국가인 만큼 일본식 표기인 미마나(Mimana) 대신 임나(Imna)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Koguryŏ (고구려)

내용분석

기원전 37년 부여족 출신의 주몽에 의해 한반도 북부 동가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 국가. 부족단위로서의 국가 형성은 기원전 2세기까지 거슬러 간다고 볼 수도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으로 왕위 세습제를 마련한 태조왕, 법 제정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킨 소수림왕, 대외팽창을 이룬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관료체제는 3년 마다 선임되는 대대로를 수상으로 12관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지배 이념으로서의 불교의 전파와 교육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상으로서의 유교, 이후 도교의 전파 및 고구려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구려 벽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후 수와 당의 침입을 받았고 668년 고구려가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패함으로써 한반도는 통일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오류

- Tongge river -> Tongga river
- 태조왕 때 왕위 세습제가 성립되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부자세습제로서의 왕위 계승이 성립된 것은 고국천왕에 이르러서였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중앙 관료제의 설명이 대대로에 대한 언급 외에는 너무 간략해서 단순히 12관등이라고 하기에는 시기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고구려 관료제를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듯하다.
- 관료들이 군사 거점에 세워진 수비대를 통해 통치했다는 설명은 무엇에 대한 언급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Koryŏ Dynasty (고려)

내용분석

935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를 통치했던 국가. 918년 왕건이 궁예의 후고구려를 전복시키면서 국호를 고려로, 수도를 개성으로 정한 후 935년 신라의 항복과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세운 통일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성종 때에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를 확립했고 교육과 과거제도가 인재등용 및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정치체제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고 (팔만대장경 간행)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비롯되는 예술 (예를 들어 고려청자) 및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고려 미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신(military officials)에 대한 차별로 인한 쿠데타의 발생(1170년)과 최충헌의 무신정권(1197년-1258년) 및 몽골의 침입과 이후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실패를 다루고 있다.

고려왕조는 1392년 이성계에 의해 멸망했다.

오류

- 고려의 건국시기를 신라를 합병시킨 935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왕건이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로 국호를 정한 918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왕건이 전복시킨 나라를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라고 했는데 918년 당시의 국호는 후고구려가 아니라 태봉이었다.

Kojong (고종)

내용분석

그의 재위기간 내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그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으로는 세종과 더불어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왕인데, 내용은 상당히 긴 편이다. 아마도 조선이 서양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고 식민지배와 밀접히 연관된 왕이 고종이기 때문에 서양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서술했기 때문인 것 같다.

오류

- 본명을 Yi H'ui -> Yi Hŭi

-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아버지인 대원군이 섭정했다고 하면서, 1882년 대원군이 청으로 납치되면서 권력이 왕비인 Min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대원군이 처음 권좌에서 물러난 것은 1873년 최익현 등의 탄핵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때 민씨 척족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대원군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잠시 권좌에 복귀했다가 결국 민씨 척족에 의해 청으로 납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882년 권력이 왕비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다. 그리고 왕비인 Min은 민비를 번역한 것인데, 명성(Myöngsöng)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것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청일전쟁 이후 청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일본, 청,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한제국의 수립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한다. 조선이 오랜 세월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조선말의 상황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Ko Hŭi-dong (고희동)

내용분석

그가 한국 최초로 일본으로 유학한 서양화가이며, 미술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짧은 정치 경력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그런데 그가 서양화에서 서양화적 기법을 가미한 동양화로 전향한 것을 "이 새로운 기법 (유화)이 그의 고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의 작품에 대한 계속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통 양식의 회화를 시작했다"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다. 한글판에는 그의 동양화로의 전향에 대해 유화물감이 비싸고 모델을 구하기 힘든 실용적 이유, 유화기법의 독창적 발전에 실패함으로써 후배인 김관호의 명성에 압도당하게 된 사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그가 일본에서 귀국한 후 10년 만에 동양화로 전향하여 서양화적 수법을 가미한 풍을 개척하였으나, 양식적으로 독자성을 이루지 못하였고 좋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고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서양화가 아직 한국 사회에 잘 수용되지 못하여 동양화로 전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에 그리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류

- 참의원 의원을 a minister of the House of Councillors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a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lors가 맞다. 즉, 의원을 minister로 번역한 것은 어색하다.

Kija (기자)

중국 출신의 전설상의 한국 왕이다. 그는 쌀과 보리를 재배하던 피난민 5,000명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중국 문명 (그리고 그 새로운 곡물들)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했다고도 한다. 그 집단은 기자는 상왕조를 멸망시킨 주왕조의 새로운 지배자를 섬기기 거부하여 기원전 1111년에 중국을 도망쳤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일찍이 중국이 한국 문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중국의 영향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기원전 2세기 한국 북서부에 중국의 식민지 4개 [한사군]가 건설된 시점으로 생각한다.

살인자를 죽음으로 처벌하는 법전 (8조금법) 등과 같이 특정한 문화적 혁신들을 기자가 이루었다고 많은 전설들이 전하기도 한다. 기자가 서법을 전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이미 쓰기가 잘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전설들은 기자의 이름을 요술과 위가 평평하고 챙이 넓은 한국의 전통 모자 (갓)의 형성과 연관시킨다.

내용분석

기자 조선의 존재 자체가 역사학 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기자에 대한 숭배는 중국에 대한 사대사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도 ‘주장된다’, ‘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다 정확하게 서술이 이루어지려면 한나라 이후 기록에서부터 기자동래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기자가 중국에서 옮겨온 것이 기원전 1111년이라고 나오는데, 한글판에는 기원전 1122년이라고 나오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연도가 나오지 않는다. 삼국유사 등에는 주 무왕 즉위년에 기자를 봉했다고 하여 1122년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설도 나름의 전거를 가지고 있어 1111년설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Kim Dae Jung (김대중)

내용분석

내용은 비교적 길고 자세히 나와 있다. 정치인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굴곡과 성공을 경험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전체 평가, 정치 입문 이전, 1971년 대선까지, 민주화 운동과 고난 그리고 1992년 대선 낙선, 대통령 당선 과정, 그리고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헌 등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오류

- 생년월일이 1925년 12월 3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음력인 것 같음. 양력 으로는 1926년 1월 6일이다. (한글판에는 1924년 1월 6일로 나와 있음)
- 출생지가 목포 (Mokp'o)로 나와 있는데, 신안 (Shin'an)이 맞다. 혹은 목포 근처의 신안이라고 해야 한다.
- 1961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 선출직에 대한 5번의 도전 이후 (after 5 attempts at elective office)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판을 비롯한 다른 자료에는 4번째 도전만에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Kim Young Sam (김영삼)

내용분석

전체 내용은 정계입문과 1980년의 정치활동 규제, 가택연금 해제부터 1992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재임시 공헌, 그리고 임기말의 경제 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 경력에 대한 소개가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다.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Kim Il-sung (김일성)

내용분석

그의 출생과 항일 운동, 한국전쟁 중 활동, 한국전쟁 이후 확고한 위치 확립과 주체사상 도입과 정책 특징, 그의 말년과 김정일 후계자 지명 등에 관한 내용이 다섯 개의 문단에 정리되어 있다.

오류

- 본명Kim Song Ju -> Kim Sŏng Ju

- 그가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매우 다르다. 여기는 19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위키피디아사전에 나오는 것이다. 한글판에는 1919년,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926년, 다른 자료에는 1920년으로 나온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외에는 특별한 오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주체를 "self-reliance"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의 주요 부분이 자주이지만, 그보다는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인 것 같다.

Kim Jae Kyu (김재규)

내용분석

그가 중앙정보부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뒤,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의 발생과 그 사건에 대한 김재규의 주장, 그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두환의 주장 등을 다루고 있다.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그 사건에 대한 김재규의 시각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오류

- Kyongsang -> Kyöngsang
- Cha Chi Chul (차지철) -> Ch'a Chi-ch'öl
- Chung Sung Hwa (정승화) -> Chöng Sŭng-hwa

Kim Jong Il (김정일)**내용분석**

그의 출생, 아동기, 청년기의 교육 배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그가 북한의 정계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김일성 사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내용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그의 통치하에서 북한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기근, 그의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내용은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오류

- 그의 출생년도가 1941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1942년이 맞다.
- 그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것은 1964년이다.

Kim Chǒng-hui (김정희)

내용분석

김정희의 출생, 북경으로의 연행, 관직생활, 추사체의 발전 등을 간단히 기술한 한 문단과 유배생활과 사망에 관해 서술한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희의 학문, 예술, 문학 등에 걸친 폭넓은 세계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서예가로 한정지어 그를 규정한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 아닌가한다. 그는 추사체로 유명한 서예가였지만, 국보로 지정된 제한도를 비롯하여 문인화에 뛰어난 화가였고, 뛰어난 금석학자였으며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문학적으로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그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오류

- Kim Chǒng-hui -> Kim Chǒng-hŭi
- 북청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오며, 맨 마지막에도 그는 1851년에 북청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북청에서 유배 갔다가 2년 후 풀려나서 말년은 과천에서 보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 그가 Ch'u-sa, or Wan-dang으로도 불렸다고 했는데, 호는 이름과 달라서 하이픈 없이 그냥 Ch'usa, Wandang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Kim Hong-do (김홍도)

내용 분석

그의 출생, 관직에의 등용, 가정 형편 등에 대한 간단한 서술에 이어 그의 주요작품인 신선도, 산수화, 풍경화의 특징들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그가 후대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풍속화를 통해서 당시 신분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김홍도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짧은 이 글에서 굳이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오류

- 그의 출생연도인 1745년 옆에 물음표가 있고, 사망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출생연도는 1745년이며 사망연도가 미상이다. 따라서 born 1745, died ?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 신선도에 대한 설명에서 선인을 “Sennin”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Sōnin으로 표기해야 한다.

Nangnang (낙랑군)

내용분석

한 무제에 의해 설치된 한사군 중의 하나. 위만조선이 함락된 뒤 평양 주변의 한반도 서북 지방에 설치되었고(기원전 108) 313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당시 한국에서의 중국 문화 중심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구는 40만 가량이었고 금속공예술이 주변 토착지역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낙랑 (Nangnang)이라는 명칭보다는 낙랑군 (Nangnang-gun)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 한사군의 설치 여부와 설치 지역 등은 여전히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서북 지역으로 한정하는 서술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 기술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낙랑의 중국문화와 사회제도가 당시 한국의 일반주민에게 거의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정확한 영향력 여부는 의문스럽다.

South Korea (남한)

내용분석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크게 국토, 국민, 경제, 행정과 사회, 문화, 역사라는 분야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서문 - 대한민국, 위치와 국경, 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동해를 *East Sea*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Sea of Japan*을 병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도와 반대로 표기한 경우이다)

국토 - 지형, 하천과 토양, 기후, 식물과 동물, 정착양식

⇒ 기후 편에서 대구의 위치를 동해안(*east coast*)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국민 - 민족과 언어, 종교, 인구

경제 - 광업과 동력, 농업, 임업과 어업, 산업, 금융과 무역, 운송

⇒ 금융과 무역 편에서 남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누락되어있다.

⇒ 운송 편에서 고속철도(KTX)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포공항을 한국의 주요공항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인천공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

행정과 사회적 상황 - 정부, 사법, 군대와 치안, 교육, 건강과 복지, 주택

⇒ 교육 편에서 의무교육기간을 초등교육 6년으로 설명하고 있다.

⇒ 건강과 복지 편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문화 - 건축, 그림과 도예, 무용과 음악, 레크리에이션, 신문과 방송

역사 - 한국전쟁이후의 역사에서 주로 정치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1961년까지의 남한 :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군사통치 : 1961년 쿠데타, 제3공화국, 유신정권(제4공화국)

민간정부의 복구 :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북한과의 관계

경제와 사회의 발전

오류

- 금강의 표기가 틀렸다. Kum -> Küm (p.2).

- 기후 중 한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남해안, 가장 건조한 지역은 동해안에 있는 대구라고 되어 있다. 대구가 동해안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동남내륙지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p.2).

-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울산 (Ulsan)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되었으며, 당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었다 (p.4)

-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곳은 공주 부근의 석장리이다. Sokch'ang -> Sökchang (p.4).

-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 도시민 (urban Chinese)을 특별히 들었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도시민이 많긴 하지만 농촌에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p.4)

- 대표적 신종교로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를 들고 있는데, 대종교의 알파벳 표기가 틀렸다. Taejongyo -> Taejonggyo (p.5).

- 한국의 주요 교역국에 중국이 빠져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고, 2004년경부터 최대 교역국이다 (p.8).

- 한국의 주요 도시로 서울특별시와 5개의 광역시가 있다고 하는데, 광역시는 6개이며, 울산이 역시 빠져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광역시였다 (p.9).

- 도(道) 다음의 행정구역인 군(郡)의 표기가 틀렸다. gun -> kun (p.9).

- 이른바 3당 합당 이후 야당으로 남은 당은 민주당과 평화민주당 (Party

for Peace and Democracy)이다. 본문 중에 나오는 Unification National Party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p.9).

-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p.9).

- 제3공화국에 관한 설명 중 신민당의 영문번역이 New Democratic Party (NDP)로 되어 있는데, New People's Party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오류는 아님)

- 1961년의 쿠데타부터 제4공화국까지를 군사통치 (Military rule) 시기로, 제5공화국부터 민간정부의 회복 (Restoration of civilian government) 시기로 설정되어 있다. 최소한 제5공화국은 그 탄생 과정이나 유지과정으로 볼 때 민간정부로 보기 힘들며, 군사통치 시기로 분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노태우 정부도 군사통치에 포함시키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제6공화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노태우 정부의 탄생, 유지 과정을 볼 때 민간정부로 볼 수도 있지만, 제5공화국은 반드시 군사정부로 봐야 한다 (p.15).

- 2002년의 한일월드컵의 영문용어가 이상하다. "the success of the World Cup association football (soccer) finals" -> "the success of the 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orld Cup" (p.17).

⇒ 전체적으로 볼 때 의무교육기간 (1994년부터 군단위, 그리고 2001년부터 전역에 걸쳐 의무교육기간이 중등과정을 포함하여 9년이 됨)이나 운송 (KTX 개통, 인천공항 개항), 국민건강보험 (1977년 도입, 1989년 전 국민에게 실시), 국민연금 (1988 도입) 등에 대한 몇몇 설명에서 최근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역사 편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정치사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오류가 거의 없지만 당시의 중요한 사건이나 설명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꽤 있다.

Roh Moo Hyun (노무현)

내용분석

가정형편, 교육배경, 사법고시 합격 등에 관한 간략한 서술에 이어서 정치경력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서술이 이어진다. 정치입문, 청문회에서의 활약, 3당 합당 거부로 인한 몇 번의 낙선과 장관 재직, 2002년 대선 과정, 대통령 취임 이후의 국내외 정세와 탄핵 등에 관한 내용이 꽤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오류

- 출생일 8월 6일은 음력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9월 1일이다.
- 출생지는 김해인데, 로마자 표기로 Gimhae로 되어 있다. 그런데 브리태니커의 전반적 표기가 MR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Kimhae가 맞다. Gimhae -> Kimhae

Roh Tae Woo (노태우)

내용분석

고교 졸업, 한국전쟁, 육사 졸업 이후의 군 경력,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의 쿠데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 전두환 정부에서 장관 경력,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경력 등에 대한 간단한 서술,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 6.29 선언, 대통령 당선, 대통령으로서 민주화, 1990년 총선 이후의 3당 합당, 북방외교 등에 관한 서술, 대통령 퇴임 후 기소, 선고, 사면 등에 대한 서술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노태우에 관한 내용에서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지속되어온 전두환과의 관계가 계속 나온다는 점이고, 민주화와 외교관계의 확대 등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길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두환에 관한 내용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민주화 선언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큰데, 노태우의 민주화 관련 성과는 민중들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 활동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오류

- 1979년에 장군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1979년은 그가 제9사단 사단장이 된 해이며, 장군은 1974년에 처음으로 되었다.

Daigak Guksa (대각국사)

내용 분석

고려 문종의 아들인 의천이 출가하여 송나라로 건너가 일 년 반 동안 머물면서 불교 서적을 수집하고 천태종을 들여와서 개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두 가지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천태종은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양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의천이 개창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계종, 교종, 천태종으로 불교가 삼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의천은 흥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수많은 불교 경전을 간행하고 속장경을 간행하고, 불교 저술의 목록도 간행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오류

- 본문에서는 대각국사가 Taegak Kuksa라고도 표기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상 이 표기가 맞다.
- 천태종의 개창으로 인한 고려 불교의 재편 내용 중 조계종, 교종, 천태종의 3개 파가 분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교종이 마치 조계종이나 천태종과 같은 수준의 파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종 대신에 당시의 대표적 교종이었던 화엄종과 법상종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Taewŏn-gun (대원군)

내용분석

그가 섭정 기간 동안 개혁과 근대화에 힘썼다는 점,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일본과 서양에 양보하는 것에 대한 반대, 반일본소요 (임오군란)의 조직에 관여, 중국으로의 납치 등에 관해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오류

- 표제어가 그냥 Taewŏn-gun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되었다. 대원군은 조선시대에 왕이 후사 없이 죽어 종친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왕의 생부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4명의 대원군이 있었고, 고종의 생부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 (Hŭngsŏn Taewŏn-gun)으로 써야 한다.
- 그의 출생년도가 182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들에는 1820년으로 나온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대원군이 섭정으로써 국정을 운영할 때 노력했던 부분으로 중앙정부의 강화, 군대의 근대화와 강화, 행정의 합리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왕권 강화, 그와 연관된 경복궁 재건, 천주교도의 박해, 쇄국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이 알려진 내용이므로 언급되는 것이 좋겠다.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용분석

임시정부의 탄생, 활동, 문제점, 독립으로 인한 종결까지 간략하게 나와 있다. 한국판에 비해 내용이 매우 짧다. 다만, 영문판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임시정부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관한 것인데, 그 중 일부는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요구된다. 그 부분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곧 극복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모든 민족주의적 분쟁을 억압했다. 그들은 1930년대 말에는 심지어 한국어 사용까지 금지했다. 외부적으로 임시정부를 형성했던 연합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비록 이승만이 명목상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그는 서구의 정신적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수상인 이동휘는 만주에서의 혁명적 작전을 위해 소비에트의 군사적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김구는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우익과 가까워졌다.

mudang (무당)

내용분석

한국종교에서 병을 치료하고 운을 점치고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며 악을 퇴치하기 위해 주술을 행하는 여 사제. 남자의 경우는 박수라고 하고 지역에 따라 둘 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세습무당의 경우 하위 계층의 분리된 종교집단으로 무당의 딸은 무당이나 기생이 되고 아들은 판소리를 하거나 굿의 악사가 된다.

무당이 주재하는 굿은 가무를 통한 몰아의 경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12거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거리에서 해당된 신을 불러온다. 굿이 진행되면서 무당은 무아경지에 빠져 굿 의뢰인에게 공수를 전한다. 현재 무당의 전문성과 명성은 점점 경제적 기회주의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오류

- 무당에 대한 설명이 세습무당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강신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굿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기 전에 주로 굿을 주재하는 강신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 현재 들어 무당의 전문성이 경제적 기회주의에 희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무당이나 그 역할이 경제적인 복을 점치거나 기원하는 역할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인지 내용이 애매하다.

Moon Sun Myung (문선명)

내용분석

문선명의 통일교 창설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교육과 기독교 내에서의 활동, 장로교로부터 파문, 북한 당국에 의한 수감, 탈출 등과 1954년 통일교 창설 이후의 기업 설립, 해외 선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인데, 이는 아마도 그의 영향력이 해외에서 크게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기금 마련, 이민, 탈세 등과 관련된 문제들, 미국에서 세금 문제로 인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부분 등 부정적 부분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것도 통일교의 영향력과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판에는 내용이 좀더 간략하며, 그가 주도로 설립한 단체들과 언론사에 관한 내용과 수상경력 등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영어판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훨씬 더 부정적이다. 한글판에는 문선명과 관련하여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교), 원리강론 등의 항목이 있으며, 교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중심이 되며,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탈세 등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류

- 그의 생일이 1월 6일도 나와 있으며 한글판에도 마찬가지로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음력 생일이고 양력 생일은 2월 25일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한다.
- 그의 출생지가 평안북도 광주 상사리로 나와 있는데, 한글판에는 평북 정주로 나와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 The Divine Principle (원리강론)의 저술년도가 1952년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들에는 1957년으로 나와 있다.

Park Chung Hee (박정희)

내용분석

간단한 소개, 출생부터 대통령 당선과 연임, 그의 통치 성격, 유신과 사망 등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인생역정, 대통령 재임기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소략한 감이 있다.

오류

- 출생월일이 9월 30일 또는 11월 14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력으로 11월 14일이므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 브리태니커 한글판에는 6월 15일로 되어 있다.

Parhae (발해)

내용분석

8세기에 대조영에 의해서 만주 북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통구스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사이에 세워진 국가. 지배계층은 대부분 전 고구려 귀족출신으로 고구려 계승자를 자처했다. 당나라의 속국(tributary state)으로 북쪽의 유목민족, 일본, 중국과 교역을 했다. 전성기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릴 만큼 번영을 구가했다. 불교의 영향이 컸고 당의 관료제를 도입했다. 926년 중앙아시아의 거란족에 의해 멸망했다.

요류

- 발해의 건국을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발해를 북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통구스계 민족들 사이에서 세워진 국가라고 했는데 만주의 통구스계 민족(*말갈족*)과 한반도의 고구려 유민을 일괄적으로 통구스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 한데 묶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Tae Cho-yang -> Tae Cho-yǒng
- Haedong-songguk -> Haedong-sǒngguk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발해를 당의 속국으로 설명한 부분은 지나친 면이 있다. 발해와 당이 조공책봉방식을 통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발해 무왕대에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는 등 대립갈등관계였던 기간도 있었고 독립국가로 존속했기에 속국이라 표현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Paekche (백제)

내용분석

기원전 18년 온조에 의해 세워진 고대 삼국 중의 하나. 고이왕 때 국가의 틀을 마련했고 근초고왕에 이르러 한강유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중남부 일대의 영토를 확립했다. 5세기 말 고구려의 팽창에 밀려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고 성왕 때에 다시 사비로 옮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5개의 지방 행정구역과 중앙정부의 16관등제, 최고 귀족회의를 구성한 6좌평, 최고관료인 상좌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불교와 유교의 발달 및 백제 미술의 특징(백제의 미소)과 중국 남조(the Six Dynasties) 미술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유역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이를 신라에 빼앗기고 660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멸망했다.

오류

- 온조가 백제를 세운 지역을 광주일대라고 했는데 한국판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위례성(지금의 서울)일대라고 나온다.
- 성왕 때의 사비 천도를 고구려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사비 천도는 성왕의 왕권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sangjwapyong -> sangjwap'yōng.

Bojo Guksa (보조국사)

내용분석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불교 종파인 조계종을 창건한 승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의 출가와 승려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그는 중국 선종의 대가 혜능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1190년에 결사를 했으며, 1200년에 송광사로 옮겨서 조계종을 확립했다고 한다. 조계종은 화엄경에 대한 공부와 참선을 중요시했다. 보조는 불교의 목적이 정신의 평안을 얻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오류

- 국사의 알파벳 표기가 잘못되었다. Guksa -> Kuksa
- Chi-nui가 보조국사의 속명 (secular name)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류이다. 지눌 (Chi-nul)은 보조국사의 법호이다.
- 보조국사가 조계종을 창건했다는 주장은 현재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내세우는 것이다. 지눌이 승려가 되기 전에 이미 조계종이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정설은 의천이 천태종을 창건하면서 당시 선종에 몸담고 있던 많은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흡수되면서 남은 승려들이 모여서 조계종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 송광사의 알파벳 표기는 Songkwang-sa가 아니라 Songgwang-sa가 맞다.

Poch'ŏngyo (보천교)

번역

(한국어: "보편적 종교"), 한국의 토착종교이며, 신비적 의미를 가졌다고 알려진 흠치 (humch'i)라는 주문을 외는 독특한 관행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흠치교 (Humch'igyo)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천교는 강일순 (1871-1909)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는 처음에 주문을 통해서나 약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해줌으로써 추종자들을 얻었다. 한국의 일본 통치자들은 보천교가 지하정치운동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강의 활동을 제한하여 그의 사망 이전에 취약한 조직만이 세워질 수 있었다. 종교의 지도적 위치는 강의 초기의 동료 (associate)였던 차경석 (Cha Kyōng-sök)이 맡게 되었다. 1919년의 3.1 독립운동 동안에 차와 30,000명의 교도들은 일본에 의해 감금되었다. 차는 이년 후에 탈출하여 보화교 (Pohwagyo) ("보편적 개화의 종교")를 창건하였는데, 이듬해에 정부에 보천교로 등록하였다.

그 종교의 신앙은 옥황상제 (Okhwangsangje), 즉 "옥황 (천국)의 위대한 군주"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천교는 일심(one mind), 상생 (coexistence), 해원 (forgiveness), 거병 (conquest of disease)의 네 가지 교의를 믿었다. 일심을 실천함으로써 교도들은 마음과 몸의 일치를 통해서 신에게로 인도되고 따라서 병을 정복하게 된다. 신과 인간의 화 (anger)를 해소함으로써 상생과 해원이 성공하게 된다. 나중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차는 인의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를 교리로, 경천 (respect for heaven), 명덕 (bright virtue), 정륜 (proper conduct), 그리고 애인 (love of mankind)을 4대 강령으로 삼게 된다.

그 종교의 주문들은 전율을 유발하고 혼수상태 같은 무아의 감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도 ("Way")에 대한 명상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깨달

음에 이르는 길로서 그리고 가장 높은 목표인 무아지경의 상태를 유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여겨진다. 이 목적을 위해 집단 활동이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신도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네 번 절함으로써 옥황의 위패에 경의를 표한다. 사원 예식은 더욱 정교하다.

내용분석

보천교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제시대 초기에 매우 큰 규모의 종교집단으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오류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류

- 보천교가 흙치교 (혹은 흙치교)라고도 불린다고 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흙치교는 증산교의 다른 이름이고, 보천교는 강증산 사망 이후 생긴 여러 분파 중 하나이다. 즉 흙치교를 계승한 일파의 종교인 것이다.
- 보천교가 강일순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것도 같은 오류이다. 보천교가 증산교를 계승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강일순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증산교 이후의 수많은 분파로 생긴 종교단체들이 모두 강일순이 창건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보천교는 증산교를 계승하여 차경석이 세운 것이라고 봐야 한다.
- 차를 알파벳으로 Cha'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Ch'a로 표기해야 한다.
- 3.1 운동 당시 차경석과 신도 3만명이 투옥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천교가 적어도 초기에는 독립운동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언급이 있는 자료도 있지만, 차경석이 투옥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920년에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1921년에 대규모의 천제를 올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3.1 운동 당시 투옥되었다 2년 후 탈옥하여 차경석은 보화교를 세우고 정부에 등록했다고 하는 내용도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보화교라는 이름을 먼

저 사용했다가 뒤에 보천교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일체에 등록하는 문제는 확인이 필요함.

- 도를 중국식으로 Tao로 표기하고 있다. To라고 표기해야 함.

- 처음에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최근에는 삼광영, 즉 일, 월, 성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왕 근자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니, 이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Sansin (산신)

내용분석

산에 존재하는 신령으로 호랑이, 불교사찰과 연결되어있다. 한국의 초기 토착 신앙에서 신령한 산에 대한 숭배는 점차 곰, 늑대, 특히 호랑이로 이어졌다. 산신도는 호랑이와 노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신은 여성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산신숭배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다. 신라시대에는 42곳에서 국가의 후원 하에,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는 13곳에서 봄, 가을로,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산신제가 개최되었다. 농민들도 신성한 산을 선택해서 제단을 마련하고 연초에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에도 풍작을 기원하고 악을 퇴치하고 질병과 가뭄을 방지하려는 염원에서 산신제는 행해지고 있다. 제단이 차려지는 장소는 집안에 우환이 없는 40대의 존경받는 남성에게 의해 정해지고 제사는 전통적으로 자정에 지내게 된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곰, 호랑이 외에 늑대 숭배도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 오늘날에도 산신의 명칭이 호랑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예가 주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 산신은 주로 여성으로 간주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판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산신의 모습은 백발도인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명칭을 나타내는 산이 많고 여성 신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산신이 주로 여성 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남성과 여성이 혼재하는 듯하다.

March First Movement (삼일운동)

내용분석

1919년 3월 1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일으킨 시위운동으로 삼일독립운동으로 불린다. 삼일운동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시위운동의 상황, 즉 참가인원과 피해규모 등이 제시되어있다.

33인에 의한 독립선언서 작성과 시위운동이 계획되었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항운동으로 폭발되었다.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공산당의 부상을 강화시켰다.

오류

- 시위운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집회 횟수, 참가 인원,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한국판 브리태니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피검자(arrestee)의 숫자는 한국판에 비해 6천명 가량 적게 나타나 있다.
- 3월 1일을 남북한 모두 국가 공휴일로 지낸다고 했는데 북한의 경우 삼일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Millennium Democratic Party (새천년민주당)

내용분석

새정치국민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이 창당. 창당 당시의 국내 정세,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의 몰락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류

- Saechonnyŏn Minju Dang -> Saech'ŏnnyŏn Minju Dang
- 2001년 총선 (legislative election)에서 61석을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96석 (전국구 19석을 포함하면 115석)을 차지했다는 내용의 오류이다.

Seoul (서울)

내용분석

개요, 자연 및 인문 지리, 역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두 번째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자연 및 인문 지리 부분은 다시 경관(장소, 기후, 도시계획, 주택), 인구, 경제(공업과 상업, 교통), 행정과 사회 조건들, 문화생활 등으로 나뉜다. 한글판에 비해 분량은 훨씬 적고 글의 구성도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전체적 느낌은 매우 오래 전에 쓰였다는 것이다.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001년에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도 무시되고 있다.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만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 벽지 지역에서 시작되어 1994년에는 군 단위, 그리고 2001년에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 전당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1993년에 전체 개관을 하였다.

- 현재 서울의 인구가 나오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인구수는 1910년의 250,000명이며, 195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만 나온다.

- 서울의 궁궐들이 나오는데, 경희궁 (Kyŏnghŭi Palace)은 언급하지 않는다.

- 주택 부분에서 전통적 주택들—추운 겨울에 대비한 온돌을 가진—이 오랜 도심 지역이나 성벽 유적 근처에 남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전통적 주택 (old-style house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온돌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마루를 데우는 방식 (heated floors)을 온돌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거의 모든 주택은 온돌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 온돌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온돌집은 서울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옛날 스타일의 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집을 의미하는지 좀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류

- Söul-t'ükpyölsi (서울특별시) -> Söul-T'ükpyölsi
- p'ungsuchirisol (풍수지리설) -> p'ungsujuirisöl
- The National Classical Music Institute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립국악원을 의미한다면,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가 맞다.
- 세종문화회관의 영문표기도 공식적 표기와는 다르다. 공식적으로는 Sejong Center 또는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라고 표기한다.

서울올림픽

Olympic Games

Seoul, South Korea, 1988 (서울, 남한, 1988)

내용분석

서울올림픽의 정치적 측면—대학생들의 시위, 북한의 공동개최 요구와 불참, 쿠바와 에티오피아의 동반 불참 등—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긴 편이다. 서울올림픽의 주요 특성들, 예컨대, 프로 선수의 참여 허용, 약물 파동 등에 대해 서술한 후, 뛰어난 선수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영문판에는 올림픽 게임이라는 항목 안에서 서울올림픽을 다루고 있는 반면, 한글판은 서울올림픽이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 매우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한국 중심이고, 올림픽 항목에서의 서울올림픽은 3줄로 간단히 처리되어 있다.

요류

- 서울올림픽 참가 선수 수가 약 8,500명이라고 나오는데, 약 13,000명이라고 해야 한다.

sŏwŏn (서원)**내용분석**

조선시대 유교 연구 및 지방 양반과 그 자제의 교육을 목적으로 비관료 지배 계층에 의해 설립된 사학. 1543년 주세붕에 의해 설립된 백운동서원이 그 기원이며 초기에는 한국의 성리학 연구에 기여했다. 이후 과별의 근거지가 됨으로써 지배계층의 분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대부분이 근대 공교육이 도입되기 전에 철폐되었다.

오류

- 설명이 간단한 반면 오류는 없는 듯하다.

Sōhak (서학)

내용분석

17세기와 18세기에 명과 청에서 전래된 서양문화와 학문에 대한 연구. 넓은 의미에서는 서양의 사상, 종교, 윤리, 과학, 기술을 포함하지만 좁게는 서양종교, 특히 로마 가톨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서학을 받아들인 학자들의 대부분은 실학자들이었으며 18세기말과 19세기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다.

오류

-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또는 천학(Ch'ōnkak)이라고 했는데 한국판 브리태니커에서는 서교, 천주학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천학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Kim Dae-gŏn, Saint (성 김대건)

내용분석

집안 내력, 교육, 서품, 선교활동, 투옥과 사형, 시복, 시성 등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다.

오류

- Dae-gŏn -> Tae-gŏn

- 출생일이 1821년 8월 21일로 되어 있다. 한글판과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는 1822년 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대사전과 천주교주교회의 공식사이트에는 1821년, 혹은 1821년 8월 21일 생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 축일이 9월 20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7월 5일이 맞다.

- 투옥과 사형이 쇄국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던 천주교 전교도 사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Sŏnggyun'guan (성균관)

내용분석

성균관의 원래 이름과 역사, 구조와 성균관생의 자격 요건, 해방 이후의 변화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한글판 브리태니커보다 훨씬 간략하고 내용도 약간 다르다.

오류

- 성균관의 영문 표기가 잘못 되었다. Sŏnggyun'guan -> Sŏnggyun'gwan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처음에 정원이 200명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판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에 의하면 처음 정원은 150명이었다고 한다. 세종 때에 200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함.
- 4종류의 성균관 유생을 들고 있는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에 의하면, 한성시과 향시에 합격한 자까지 포함되어 5종류라고 한다.

Sejong (세종)

내용분석

세종 대에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한글을 창제하고, 불교를 억제했음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여러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에 이룬 세종의 업적에 대한 서술로는 너무 소략하다. 더구나 세종의 업적으로 단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억불정책인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불교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조선 태조 때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세종은 이를 계승했을 뿐이며, 왕실에서는 여전히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특히 말년에는 스스로가 불교에 많이 기울어진 것을 볼 때, 이를 세종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운 것은 거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오류

- 그의 재위기간은 1419-50이 아니라 1418-50이다.

Shimonoseki, Treaty of (시모노세키조약)

1895년 4월 17일, 첫 번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과 체결한 강화조약. 한국의 자주독립 인정, 대만과 평후 군도 및 랴오둥 반도의 일본 이양, 2억 냥의 배상금 지급,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4개 항구의 개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개입으로 일본은 랴오둥을 반환하는 대신 추가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 눈에 띄는 오류는 없다.

Singanhoe (신간회)

내용분석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쟁취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1927년 한국 민족주의자들과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통일 민족 독립 전선. 민족의식 고양과 반일감정 고취를 목표로 한국어 연구를 지원하고 사상의 자유를 요구했다. 지회가 138개, 회원 수가 3만 7천명에 이르는 등 크게 팽창했으나 일본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인해 1931년에 와해되었다.

오류

- 신간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사상의 자유(freedom of thought)를 요구하고 한국 대학에서의 학술적인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사상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나타내는지, 학술연구가 일종의 계몽 운동의 일환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다.
- 신간회의 표기는 Sin'ganhoe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Silla (신라)

내용분석

기원전 57년에 혁거세에 의해 세워진 삼국시대 국가의 하나. 2세기까지 한반도 동남지역에서 지방부족의 연맹국가로 존재했다. 내물왕 때에 김씨의 왕위 계승을 확립하고 법흥왕 때에 법 제정과 가야 동부지역(금관가야)을 병합해서 국가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특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했던 신라의 귀족계층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라의 조각과 장식미술의 특징, 건축, 도자기의 특징 및 불교의 융성과 이에 따른 사찰의 건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진흥왕 때의 화랑도의 조직과 군사제도의 재정비를 기반으로 이후 당과 연합해서 백제(660년), 고구려(668년)를 멸망시킨 후 당을 축출하고 통일신라를 건립했다.

오류

- 신라의 귀족계층을 설명하면서 골품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관료제나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대신 신라 미술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 골품제와 관료제에 대한 설명은 한국 역사(Korea, history of)편의 삼국시대(Three kingdoms)에 간단하게 나와 있다.

- Sokkuram -> Sökkuram

신라시대의 사찰로 황룡사, 불국사, 석굴암을 들고 있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이다.

Silhak (실학)

내용분석

18세기 한국의 혼란 속에서 성리학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대신 실천적인 치국책을 지향했던 학파. 실학파는 성리학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토지개혁과 농업의 발전과 같은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토지개혁과 농업, 계급 및 노예제 철폐에 관심을 가졌던 이익과 상업과 기술의 발달을 옹호했던 박지원을 들고 있다.

실학은 서학과 더불어 한국의 점진적인 근대화를 고무시킨 사상의 발달과 보급에 기여했다.

특별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 Chung-shik (안중식)

내용분석

그의 젊은 시절, 특히 중국에 1년간 머물렀던 것, 그의 기법, 화풍, 서예, 후진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류

- 그의 호인 심전의 알파벳 표기가 틀렸다. Shimjon -> Shimjŏn
- Sohwa Hyobhoi (서화협회) -> Sŏhwa Hyŏphoe

부정확한 표현과 참고할 사항

- "한국 왕실은 훈련을 위해 안중식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하여, 마치 안중식이 그림 훈련을 위해서 중국에 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81년 신식 무기 제조법과 조련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 갔던 영선사 일행의 제도사 (製圖士)로 중국에 갔다.
- "그는 또한 모든 서체에 통달한 유명한 서예가였다"는 내용은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글씨에도 뛰어났다는 점은 안중식의 글이 서화감식에 조예가 깊었던 오세창이 엮은 서첩인 『근목』에 포함된 점으로 유추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 서화협회의 창립연도가 1918년으로 나온다. 그런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의 안중식 표제어에서는 1919년인 것으로 나온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에서도 서화협회 항목에서는 1918년에 창립된 것으로 서술된 것을 보았을 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의 안중식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Yamato relations with Korean states (야마토 정권의 한국과의 관계)

Japan

History

Ancient Japan to 1185

The Tumulus(Tomb) period (c.250–552)

내용분석

5세기 일본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정세 개입을 주로 다루고 있다. 4세기 후반 야마토 정권이 고구려에 대항해서 군대를 파견할 당시 야마토는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 또는 고구려 (혹은 두 나라 모두)에 대항했다.

고구려의 빈번한 침입을 받고 있던 백제는 계속해서 야마토 정권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기록에 따르면 백제가 불모로 왕세자와 왕의 모친을 야마토에 보낸 적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알력으로 인해 야마토는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야마토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륙의 선진 기술과 자원, 특히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되던 철에 대한 욕구였다. 야마토는 가야연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역에서 약간의 권력을 획득했는데 가야(일본명: 미마나)와의 관계가 동맹이었는지 속국관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6세기에 신라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면서 야마토는 수세에 몰렸고 562년 신라가 가야연맹을 합병한 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요약보다는 대부분 번역으로 대신했음)

-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야마토 정권이 당시 한반도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 측의 해석에 수정이 가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고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정복해서 미마나라는 식민지

를 건설했다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역사가들의 주장은 2차 대전 이후로 한일 양측 역사가들에 의해 거의 무시되어진다고 설명한다. 당시 야마토는 백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백제로부터 칠지도(seven-pronged sword)가 전래되는 등)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이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전수했다는 내용을 서술하는 반면 야마토 정권의 팽창으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한반도 삼국의 분쟁에 개입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이미 폐기되다시피 한 학설을 굳이 설명함으로써 고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yangban (양반)

내용분석

조선시대의 최상위 신분계층이며 문반과 무반으로 구성된다. 양반이라는 말의 기원을 문과와 무과로 나뉘어 시행되었던 고려시대의 과거제에서 찾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토지를 소유한 전 계층을 지칭한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계급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된다.

양반의 특권으로 토지와 녹봉,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와 군역 및 노역의 면제를 들고 있다. 양반은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했고 3대째 관료를 배출하지 못하면 양반신분을 박탈당했다. 양반제도는 점점 부패하면서 사회발전의 유해요소로 간주되다가 1894년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 속에서 폐지되었다.

오류

- 한국판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넓은 의미의 양반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배 신분층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양반은 관제상의 문무반을 지칭하며 이 개념은 경종대의 전시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려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와 위에서 서술하고 있는 고려의 과거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한 양반관료제와 과거제는 어떤 연결의 의미를 갖는지, 과거에 합격해서 문무반의 관료가 되고 토지를 지급받는다고 보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 조선시대에 들어와 토지를 소유한 전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반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중인, 양인 등 다른 신분에서도 가능했다.
- 양반의 특권 중 하나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법제적으로 과거가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양반의 자제들이 유리하도록 운영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상민(sangmin)은 대체적으로 양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대째 관료를 배출하지 못하면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양반의 형성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학설 대신 양반의 의미와 특권 및 특징, 그 폐지를 다루고 있다.

won (원)**내용분석**

남한과 북한의 화폐단위. 남한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권과, 남한의 지폐 및 동전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화폐발행과 통화조절을 담당하며 원은 100전으로 환산된다. 외화로 환전이 안 되는 일반화폐와 외화로 환전이 되는 특수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오류

- 원(won)을 설명하면서 환(hwan)이라고도 쓰이는 화폐단위라고 했는데 환은 현행 화폐단위인 원(won)이전에 쓰였던 단위이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1962년 현재의 원(won)을 도입할 당시 구원(the old won)과 원의 교환비율을 100대 1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구화인 환(hwan)과 신화인 원의 교환비율은 10대 1로 나와 있다.

Wonhyŏ Daisa (원효대사)

내용분석

불교 이론가 (사상가)로서 원효는 한국 불교를 체계화한 첫 번째 인물인데, 특히 그의 특징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사상을 풀어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과 실제의 조화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주요 저서를 열거하고 있다.

오류

- 그의 이름을 Wonhyŏ Dais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Wŏnhyo Daesa로 표기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오류로 보긴 어렵지만 한글로 된 백과사전의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따라야 할 5가지 계율을 원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원효의 사상과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 이상과 실제의 조화를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모호하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원효의 주요 사상을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애사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상과 실제의 조화, 현재와 영원의 조화라는 것이 어느 사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원효가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실계하고 난 이후 그의 행적을 현재와 영원이 조화되는 삶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례는 그의 무애사상과 대중예의 전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이 인용되는데, 이것이 영문판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이장의 (二障義)를 “The Meaning of Two Desires”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지나친 의역이며 오히려 그 책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차라리 “The Meaning of Two Obstacles”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Yun Po Sun (윤보선)

내용분석

에딘버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국, 정치에의 투신, 대통령 당선과 하야, 민주화 운동 경력 등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특별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름의 영문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는 Yun Po-sun으로, 다른 곳에는 Yun Bo-seon, 또는 Yun Boseon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승만(Rhee, Syngman)이나 박정희 (Park, Chung Hee)처럼 확고하게 정해진 영문표기가 있는 것 같지 않다. MR 방식에 따르면 Yun Po-sŏn이 되어야 한다.

첫머리에 그를 liberal president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liberal"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Yun, Isang (윤이상)

내용분석

그의 교육 배경과 음악의 특징, 대표작 등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다.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 표기는 다른 모든 자료들에서 위와 같이 통일되어 있다.

Yi Sang-cha (이상좌)

내용분석

그가 가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인해서 왕의 주목을 받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벼슬까지도 하게 된다는 내용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으며, 그가 특히 인물과 산수에 뛰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오류

- 그의 이름은 Yi Sang-chwa로 표기해야 한다.
- 특별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작품으로 확인되는 것은 1점도 없고, 현존하는 국내외의 유작들은 모두 전칭작(傳稱作)이라는 점은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Yi Sun-shin (이순신)

내용분석

생몰년월일, 관리가 되어서 두 번의 무고한 처벌, 전라좌수사가 되고 난 이후 왜와의 전쟁에 대한 대비, 왜군과의 전투, 또 다른 무고, 재등용 이후의 성공과 죽음 등에 관해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글판에 비해서 내용이 매우 짧다. 특이한 것은 한글판 브리태니커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생몰년만 나와 있는 반면, 영문판에는 일자가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Rhee, Syngman (이승만)

내용분석

한글판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교육 배경, 한국에서의 독립운동, 미국에서의 활동, 해방 이후의 행적, 특히 한국전쟁 당시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며, 그의 과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특별한 오류는 없어 보인다.

오류

- Whanghae -> Hwanghae

Yi In-mun (이인문)

내용분석

이인문의 화풍과 대표작 등에 관해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오류

- 그가 Haejo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다. 그는 본관이 해주 (Haeju)이며, 본관은 출생지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 그가 전통적 북종화 (the traditional Northern school of Chinese painting)의 추종자였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들에서는 그가 남종화와 북종화를 혼합하여 특유의 화풍을 이룩했다고 하며, 오히려 남종화법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온다.
- 그의 대표작을 “River in Spring”이라고 하는데, 그 뒤의 설명 등을 종합해볼 때 “강산무진도”를 이르는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번역이 잘못 되었다. 왜냐하면 “강산무진도”는 끝없이 펼쳐진 강산을 그린 것이며, 한 그림 안에 사계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는 산수를 그릴 때 수채물감 (watercolour)를 사용했으며, 그것은 당시 까지 이례적이었으며 그 후에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Yi Chǒng (이정)

내용분석

세종의 현손으로서 시서화에 능했고, 특히 목죽화에 뛰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 (조선)의 이상적 귀족상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그가 성품이 당당하고 관대하며, 시서화에 뛰어났다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에 관한 다른 자료들에는 목죽화에 뛰어난 점이 가장 부각되고 있으며 그가 이상적 귀족상을 구현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류

- 그의 호를 T'anŭm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탄은이므로 T'an'ŭn으로 표기해야 한다.

Chajang Yulsa (자장율사)

내용분석

자장은 한국 (당시 신라)에서 승려가 된 이후 당나라로 건너가 7년간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했으며,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석가모니의 유물을 가지고 왔다. 신라에서 가장 높은 불교 관계 직책에 임명된 이후 신라를 불국토임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도움으로 그가 가져온 부처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황룡사에 9층탑을 건립하였다. 이 탑은 신라의 국가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당과 신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라가 한국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그는 불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대중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가의 도덕을 높이려 하였다. 그는 또한 승려들의 금욕생활을 격려하여 일반인들의 도덕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모델로 삼고자 통도사를 건립하였다.

오류

- 오류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가 불교를 한국의 국가종교로 만들려고 한 불교 승려였다고 하는데, 한국 대신 신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 자장이 가져온 부처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황룡사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부처의 사리는 통도사 금강계단, 백림은 대화사 석탑에 안치하였다. 황룡사 석탑에 부처의 유물을 안치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신라가 자장의 건의로 당나라의 복식을 따르고 연호를 사용한 것이 관계의 친밀도를 높인 것은 분명하겠으나, 그 목적이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당시 신라가 두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자장의 건의가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자장의 가장 큰 업적이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은 것이고, 그러한 업적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 통도사의 창건이다. 즉, 그는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출가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를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직접 연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브리태니커 한글판에 따르면 638년 자장이 당나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전에는 636년으로 나온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떤 사료에 근거했는가에서 기인하는데, 『삼국유사』에는 자장의 당 유학이 636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속고승전』 등에는 63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학계의 입장은 638년설을 따르고 있다. 또한 자장의 생몰연도가 610-654년경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590-658년경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들도 대체로 이 년도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changsŭng (장승)

내용분석

한국에서 악을 쫓기 위해 마을이나 사찰 입구(때에 따라서는 동, 서, 남, 북)에 세워둔 사람

얼굴 모양의 목상이나 석상. 잡귀를 쫓고 병을 치료하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이정표나 경계표의 역할을 했다. 주로 2미터 높이며 눈과 이가 두드러진 빨간 얼굴형상으로 남녀로 쌍을 이루는데 남상은 관을 쓴 형상으로 천하대장군이 새겨져있고 여상은 지하여장군이 새겨져 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장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솟대(sotdae)가 있는데 학과 오리를 새긴 형상을 얹어 조선시대 관직보유자(과거급제자)를 축하하기 위해 묘지나 집 앞에 세우기도 했다.

오류

- 장승의 의미를 ‘장수 (long life)’라고 했는데, 아마도 장생(長生)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찰 주변에 세웠던 장생을 장승의 기원과 관련하여 유력한 설의 하나로 보고는 있으나 여러 설중의 하나일 뿐 단정할 수는 없어 오류로 볼 수 있다.

- 장승의 일반적인 형상을 빨간 얼굴로 설명했는데 지역에 따라 채색, 형상, 크기 등이 다르다고 한다. 특히 빨간 색으로 채색한 경우는 인면형 장승 중 남상에 해당되는데, 얼굴부분이 아닌 몸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상의 경우도 몸체에 청색으로 채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빨간 얼굴형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 솟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하다. 솟대를 세우는 주요 기능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작 기원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고 과거급제자를 위해 세운다는 설명만 나와 있다. 후자는 솟대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대 위에 새의 형상이 아니라 용의 형상을 붙인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솟대를 설명하면서 세운 목적을 과거급제기념이라고 설명한 것은 오류로 여겨진다.

Chang Sŭng-öp (장승업)

내용분석

장승업의 어린 시절, 미술 습득, 업적 등에 대해 5줄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오류

- 출생지가 Taewön (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그의 본관이지 출생지가 아니다.
- 그의 호가 나오는데, Owon (오원)으로 잘 못 표기되어 있다. Owön이 맞다.
- 그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맹이라서 그 자신의 그림에 서명(sign)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자료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글판 브리태니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는 이응헌의 집에 기식하면서 글과 그림을 어깨너머로 배웠고, 어느 날 화리가 튀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는 어느 정도 글도 깨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오류는 아니지만, 그의 업적으로 두껍고 물감에 천천히 반응하는 한국 전통 종이 대신 얇고 물감에 빨리 반응하는 중국 종이에 그리는 것에 능통한 첫 번째 한국 화가라고 나오는데, 단 하나의 업적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한국 전통화법을 총결산했다던가, 남종문인화 일색이던 당시 화단에서 북종화법을 탐색했다던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된다.

Chun Doo Hwan (전두환)

내용분석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후를 중심으로 그의 군 경력과 정치 경력, 정치 은퇴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꽤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정적을 제거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행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몇 가지 어려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의 기소, 사면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며, 그 예로 대통령으로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류

- 출생지가 내촌리 (Naechonri)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자료들에는 모두 경남 합천으로 나와 있으므로, Hapch'ŏn, Kyŏngsang-nam province라고 해야 한다.
- 전두환의 장인인 이규동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므로 그의 이름 알파벳 표기를 Lee Kyu Dong이 아니라, Yi Kyu-dong으로 하는 것이 맞다.
- 그의 경력에 대한 서술에서 1958년 결혼 이후, 베트남전 참전, 5.16 군사혁명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 참여 등의 순서로 나와 있는데, 연대상 베트남전 참전은 1970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5.16 이후에 기술되는 것이 맞다.
- 1978년에 장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973년에 준장 (brigadier general), 1977년에 소장 (major general)이 되었다. 1978년에는 제1사단장이 되었다.
- 정승화가 Chung Sŭng-hwa로 표기되어 있는데, Chŏng Sŭng-hwa로 표기해야 한다.

- 1980년 8월 16일 퇴역한 이후 8월 27일에 대통령이 되어서, 1980년 말에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고 나와 있다. 그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겪은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나온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0년 8월 27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헌법이 선포된 이후, 전두환은 1981년 1월 15일에 민주정의당 (the Democratic Justice Party)을 창당하고 총재로 추대되었으며, 그해 2월 25일에 새로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월 3일에 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영문판의 내용에 의하면 그가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8년에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5공화국이 시작된 새로운 헌법과 그에 의한 대통령 당선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Intelligence (정보)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국가 정보조직)

Intelligence systems in other countries (여타 국가들의 정보조직)

내용분석

남한의 정보기관에 대한 서술. 1960년대 설립된 중앙정보부(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이후 개편된 국가안전기획부(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가 국내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 감독이 강화되다가 1999년 국가정보원(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으로 개칭되면서 그 역할을 국가보안정보의 수집과 조정으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국가보안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국군기무사령부(the Defense Security Command)와 국가정보원이 책임을 맡고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 내부의 대적첩보활동도 다루고 있다.

- 남한의 정보기관으로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그 폐해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기무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현재의 역할만 소개하고 그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Chǒng Sǒn (정선)

내용분석

정선이 조선 특유의 화풍을 확립했으며 이후 화가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내용이 간단히 서술된 이후, 그가 관직에 나가게 된 배경, 왕성한 작품활동, 특유의 화법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그가 새로이 창안하거나 발전시킨 화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한데, 한 가지만 서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그는 독특한 화필 ‘주름’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굵은 수직적 수평적 붓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소위 ‘주름법’ 또는 ‘바위주름법’으로 불리는 필법을 이르는 것 같다. 이러한 필법이 정선 그림의 특징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 하나의 예만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기에는 적합지 못한 것 같다. 소위 ‘진경산수화’ 혹은 ‘실경산수화’를 언급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오류

- 그의 호인 겸재를 Kyǒmjja로 표기하고 있는데, Kyǒmjjae가 맞다.

Chǒng Yak-jong (정약종)

내용분석

그의 생애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초기 한국 천주교의 뛰어난 지도자였으며, 정약용의 형이었다. 그는 평신도 모임인 명도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천주교의 교리를 한글로 쓴 주교요지의 저자이기도 했다. 그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오류

- 그의 이름은 Chǒng Yak-chong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그가 중국인 신부 주문모에 의해서 천주교에 귀의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그는 먼저 천주교에 입교했던 형 정약전을 통해서 천주교에 접한 이후 이승훈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중국어 발음에 따라 Chou Wen-mu로 나오는데, 비록 그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천주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의 이름은 한국어 발음에 따라 주문모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이 한국 천주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모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Yi Dynasty (조선)

내용분석

이성계가 세운 최후이자 가장 오래 존속한 한국의 왕조국가(1392년-1910년). 수도는 한양이며 조선왕조(Chosŏn Dynasty) 또는 이씨왕조 (Yi Dynasty)라고 한다.

이성계는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행정면에서 중국의 관료제를 도입했으며 신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다. 이전 국가들과 달리 토지를 다양한 직급의 관료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반이라는 새로운 특권계층을 창출했다.

학문이 발달했고 1443년 한글이 창제되었으며 성종 대에 이르러 정부행정의 관료제도가 확립되었다.

1592년 일본의 침입과 1627년 만주족의 침입으로 국토의 황폐화와 문화재의 손실, 중앙정부의 약화가 초래되었다. 영조와 정조의 중흥정치와 관개시설의 확충에 따른 농업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발달 및 실학의 대두가 이어졌다. 1880년대까지 쇄국정책이 지속되다가 1876년 일본과의 조약을 기점으로 조선은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됨으로써 긴 역사를 마감했다.

오류

- 한국의 역사상 왕조를 칭하면서 유일하게 조선에 대해서만 성씨를 사용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 dynasty라고 하면 왕조의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조선에 대해 Yi Dynasty라고 부르는 것 외에 그런 예를 볼 수 없다. 따라서 Yi Dynasty 대신 Chosŏn, 또는 Chosŏn Dynasty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 오류라기보다는 신유교는 성리학으로 서술함이 더 일반적일 것 같다.

- 특권지배신분으로서의 양반계층의 성립을 토지분배와 연결시켜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 조선의 긴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서술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고 특히 문화, 예술, 종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Cho Sok-chin (조석진)

내용분석

조석진은 조선 말기의 대표적 화가이며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활동했다. 그는 전통적 문인화를 재창조했다. 그는 화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중국으로 가서 공부했고, 돌아와서는 물고기의 그림에 뛰어났고, 고종과 황태자의 초상을 그려 벼슬길에 올랐다. 조선 멸망 후에는 서화미술회 강습회와 서화협회의 창립을 도왔다.

오류

- 그의 이름 알파벳 표기가 잘못되었다. Cho Sok-chin -> Cho Sök-chin
- 그는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Ch'oe Kyŏng (최경)

내용분석

최경이 조선 초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이며 또한 최초의 궁중화가 중 하나라는 내용과 더불어 그가 많은 왕족의 초상화를 그린 인물화의 대가이며 그로 인해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오류

- 그의 호를 Kunjae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근재이므로 Kŭnjae로 표기해야 한다.
- 본문 두 번째 줄에 flourished 15th century 다음에 쉼표가 두 개 연속 찍혀 있다.

Ch'oe Si-hyŏng (최시형)

내용분석

최제우의 사망 이후 동학의 2대 교주로서의 활동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동학 내 조직 정비, 경전 발행, 가르침 내용,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체포와 처형 등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특별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h'oe Che-u (최제우)

내용분석

동학의 기본적 특징, 최제우의 성장, 수련, 득도, 전파, 처형, 그 이후 동학이 많은 농민운동의 기초를 이룬 것 등에 대한 서술이 있다.

오류

- 그가 서울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대구 (Taegu)가 맞다.
- 최제우가 과거에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최제우의 아버지인 최옥에 해당한다. 다른 어떤 자료에도 최제우가 과거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Ch'usŏk (추석)

내용분석

중추절, 가배, 한가위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명절. 음력 8월 15일에 지내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차례, 성묘, 선물 주기(gift giving), 운동경기(줄다리기, 궁술대회, 씨름), 가무 등의 추석행사를 소개하고 있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으며 추석에 많은 한국인들이 한복을 입는다고 설명한다.

오류

- 추석의 유래나 역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재의 추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민속놀이(가무부분)로 강강술래를 언급하면 더 적절할 듯 하고 선물 주기가 추석의 현상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인지는 모르겠다.

T'aigo Wangsa (태고왕사)

내용분석

그의 출가, 화엄선 합격, 활동, 중국으로 건너가 임제종의 18대 법손인 석옥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으며, 귀국 후 불교의 개혁을 추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이 서술되어 있다.

오류

- 보우가 그의 법명이며 태고는 호이다. 그리고 1356년 왕사로 책봉되었으며, 그 이후 국사로 책봉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호칭은 '보우' 또는 '태고 국사'로 하는 것이 맞다.
- 태고의 알파벳 표기가 잘못 되었다. T'aigo -> T'aego.
- 그가 화엄선에 합격하여 정식 승려가 된 것은 그가 26세 때였다.
- 원융부의 표기도 잘못 되었다. Wonyung-bu -> Wönyung-bu.

Unified Silla Dynasty (통일신라)

내용분석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멸망시킨 후 당을 축출하고 이룩한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 현재 한국의 많은 특성이 신라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통일 이후 중국의 관료제를 도입하고 행정과 군사제도를 정비했지만 귀족계층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다.

통일신라 미술에 끼친 당의 사실주의(Tang realism) 영향과 신라예술의 특징을 살펴본 후 9세기 들어 귀족의 갈등과 농민반란에 의해 왕국이 분열되고 935년 고려에 멸망했다고 글을 맺고 있다.

오류

- 통일신라가 멸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고려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신라의 자진 항복이었음을 알 수가 없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삼국통일 이전과 이후의 신라를 구별하기 위해 각각 신라,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 들어 통일신라시대보다는 남북국시대라는 개념이 보다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용어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발해를 한국사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남북국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부기되었으면 한다.

P'anmunjöm (판문점)

내용분석

위치, 성격, 판문점을 둘러싼 주요 사건들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alkwanhoe (팔관회)

내용분석

본질적으로는 불교이나, 도교와 토착신앙이 혼합된 국가적인 종교의식이자 축제. 불교가 국가종교로 인정된 551년에 시작되었고 호국적인 기원을 포함하고 있다. 팔관회 행사 기간 중 향과 등을 밝히고 가무와 술, 다과를 즐겼다. 왕은 외국 상인들이나 지방 관리들의 축하를 받았으며 팔관보가 행사 경비를 충당했으나 귀족의 기부를 받기도 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학자에 따라서는 팔관회의 기원을 이전 시기의 추수감사제(harvest festivals)에서 발전한 국가 차원의 문화제전(cultural festival)으로 본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기원을 찾는다는 설명인 듯하다.

P'ungsuchirisol (풍수지리설)

내용분석

바람, 물, 땅에 대한 이론. 지역의 자연환경이 그곳의 거주자와 후손의 운에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 중국의 바람-물(feng-shui)에 대한 개념, 음양(yin-yang)과 오행에 대한 개념이 풍수지리설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땅의 형태에 따라 건물이나 집, 사찰이나 묘지에 좋은 터와 피해야 할 터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묘지의 명당자리로는 웅장한 산이 작은 산으로 이어지다가 멀리 사라지면서 왼쪽으로는 청룡형태의 산과 오른쪽으로는 백호형태의 산에 둘러싸이고 뒤쪽으로도 먼 산을 마주하는 자리여야 한다. 피해야 할 자리는 교통이 번잡한 도로 근처나 우기에 홍수가 지는 마을이나 용과 호랑이 형태의 산이 만나는 자리이다.

조선의 창시자인 이성계가 수도를 서울로 옮긴 것은 서울의 조건이 풍수지리설의 요건에 맞아 떨어지는 터였기 때문이다.

오류

- P'ungsuchirisol -> P'ungsujirisöl
- 풍수지리설을 중국에서 전래된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끝났는데 한국에 전래된 이후 우리 식의 풍수지리설로 발전시켜왔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좋을 듯하다.

Korea and the Sino-Japanese War (한국과 청일전쟁)

China

Late Ch'ing

Changes in outlying areas

내용분석

19세기 초 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주변국들에 대한 서술.

조선에서는 고종이 대원군의 섭정아래 1864년 왕위에 오른 뒤 1866년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프랑스 및 미국을 격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청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1875년 한국과의 협상이 시간을 끌자 일본은 강화도에 전함을 파견해서 포격을 가하고 1876년 한국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한국의 독립성을 규정한 강화도 조약에 대해 청은 언제라도 속국인 한국을 도우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은 한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도왔고 한국 친청파(pro-Chinese Koreans)의 근대화를 지원했다. 그러나 1882년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써 민비가 축출당하고 일본 공사관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은 군대를 파견해서 대원군을 체포하고 왕을 재축해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끔 했다. 이로써 청은 자국의 종주권에 대한 요구를 구현했다.

1884년 또 다른 친 일본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실패한 후 한국에 대한 청의 정치적 영향력과 상업적 특권은 더욱 강해졌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1893년에 이르러 빈민들을 규합한 정치운동으로 촉

발되었으며 이들 세력은 1894년 5월 전주를 점령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지만 전주의 반란세력은 이미 와해된 이후였다. 일본이 군대를 상주시킬 구실로 중국에게 한국의 개혁을 같이 지원할 것을 제안했지만 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7월 25일 일본해군이 강화도에서 중국전함을 격퇴하면서 8월 1일 양측은 전쟁을 선포했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다.

1895년 4월에 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주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문의 대부분을 번역)

오류

- 대원군의 쇄국정책, 강화도 조약의 체결,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내정과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청일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단, 일본이 강화도 조약이나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의 독립을 설정하는 이유가 조선과 청의 관계를 끊게 함으로써 자국의 침탈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임오군란 당시 청국이 대원군을 체포하고(arrest) 고종을 촉구해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했는데 대원군을 납치한 사실을 체포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Korean Language (한국어)

내용분석

한국어(Korean language)를 남한과 북한 및 중국, 일본, 미국, 구소련의 교포를 포함해서 7200만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소개하고, 언어의 역사와 문자 체계, 언어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언어의 역사와 문자 체계

- 일반적으로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일본어나 알타이어족과의 연관성, 특히 터키어, 몽고어, 통구스어와 연관성을 추측하고 있다.
-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 McCune-Reischauer system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어의 문자 체계는 1443년에 제정되었고 현재 남한에서는 한글로 칭해진다.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체계의 변화, 성조와 강약의 소멸, 띄어쓰기의 사용(1896년부터), 한자어 차용, 형태음소론적인 단어의 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의 특징

- 한국어의 모음, 자음, 동화(assimilation, 국민 -> 궁민), 격음과 경음, 연음, 문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부분을 설명하면서 Romanization된 한국어 단어나 문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문장의 경우 본문 끝에서 밝혔듯이 격식을 차린 문체(formal style)가 아닌 구어체(informal style)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오류

- 한국어의 문자 체계를 ‘언문’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 한국 단어를 쓸 때 첫 번째 요소는 자음이 오고 모음일 경우에는 자음 자리에 'ㅇ'을 쓰고 다음 요소로 첫 자음의 왼쪽이나 아래쪽에 모음이 온다고 했는데 이를 자음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수정해야 한다. 설명에 따르면 '바'를 'ㅂㅂ'로 표기하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

Korean writing (한국어 쓰기)

- Writing (쓰기)
- History of writing systems (쓰기 체계의 역사)

6세기 경 중국의 문자 체계가 한국에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중국문자의 사용은 일본에서와 같은 문제를 낳았다 (중국어는 단음절어이고 고립어인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여러 개의 음절로 구성되고 굴절어여서 중국문자로 한국어나 일본어를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라는 괄목할 만한 문자 체계가 창제되었다. 28글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음소가 발음되는 모양을 본떠 시각적으로 구성된 문자 체계이다. 이는 동양의 문자로서는 유일하게 자질문자 체계(featural script system)를 도입한 것으로 중국의 문자 체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자적인 문자창제에 해당한다.

오류

- 20세기까지 일반적으로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은 중국문자 체계(한자)를 이용해서 중국어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자칫 한국에서 중국어가 통용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단지 한국어의 표기를 위해 중국문자(한자)를 도입했고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도 한글과 병행해서 계속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중국어가 따로 통용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중국의 문자체계, 즉 한자가 한국에서 도입·사용된 시기를 6세기 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6세기는 중국과 외교문서가 오가는 등 이미 한자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이다.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진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조선과 중국의 접촉이 잦았고, 기원 전후의 유적인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붓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한자의 전파시기를 보다 소급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istory of Korea (한국의 역사)

분량: 16쪽

내용분석

구석기 시대의 한반도에서 1953년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되기까지의 한국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후의 현대사는 북한(Korea, North)과 남한(Korea, South)편의 역사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00년까지의 한국역사>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묘사에 이어 고조선과 단군, 철기시대의 도래와 위만조선, 한 4군의 설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 고대국가의 발달 편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출현과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주어지고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이후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건국으로 이어진다.
- 고려건국(918년) 과정과 고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무인정권 시대와 몽골의 침입과 간섭, 사회상의 변화, 사대부의 출현과 조선건국(1392)이 묘사되어있다.

<1400년 이후의 한국역사>

- 유교국가인 조선의 건국과 사회제도, 세종대왕의 치세, 15세기 후반의 학문연구와 서원 건립, 외세의 침입(왜란과 호란)등을 설명하고 있다.
-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의 중요한 변화들을 설명하면서 농경, 상업, 문학, 예술을 조명하고 실학파를 4개의 주요 학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로마 가톨릭의 도입과 포교, 박해에 이어 19세기 외척의 득세와 농민봉기의 연속, 동학의 설립을 설명하고 있다.
-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정치개혁에 대한 설명에 이어 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세계열강들과의 조약체결과 개혁을 내세웠던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 동학 봉기의 배경과 이어지는 청일전쟁, 그 결과 일본의 우세, 갑오개혁의 단행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등장, 주권회복운동, 러일전쟁과 일본의 승리에서 이어지는 을사조약(1905년) 체결, 헤이그 밀사의 실패, 일본에 대한 의병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 1910년 한일합병이후 일본의 조선통치제도와 행태, 삼일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이후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일본의 민족말살정책과 마침내 일본의 항복에 이르기까지가 묘사되어 있다.
- 이후 한국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국제회담들과 정세 묘사에 이어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남북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북한의 무력증강과 남북한 군사 현황 묘사에 이어 북한의 침입과 유엔의 개입 및 중국의 개입, 이후 휴전협정과 한국에 대한 원조를 다루고 있다.

요류

<1400년까지의 한국역사>

- 청동기 사용을 기원전 8세기로 설명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10세기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 한다고 했는데 10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10세기가 타당하고 기원전 BC 표기가 빠져 있다. 즉, the 10th century → the 10th century

BC로 수정되어야 한다.

- 발해의 표기를 Parhae (or Palhe)라고 했는데, (or Palhae)라고 해야 한다.

- 조계종의 성립 이유를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불교를 탄압함에 따라 많은 승려들이 깊은 산속으로 피해가서 조계종이라는 새로운 선 종파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대각국사 편과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의천이 고려에 돌아와 천태종을 창립하면서 선종 계열의 많은 승려들을 흡수한 이후 남은 선종 계열의 승려들이 모여서 조계종을 창립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신정권의 불교탄압과는 무관한 이유로 조계종이 탄생한 것이다.

<1400년 이후의 한국역사>

- 조선왕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1392년부터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왕이 조선을 통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26명에서 27명으로 수정해야 한다.

- 실학파를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옹호하고, 과거·교육·조세·토지행정의 합리화를 요구

두 번째 그룹은 상업, 산업, 기술을 장려

세 번째 그룹은 유교 경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네 번째 그룹은 한국역사, 지리, 언어 연구에 집중

이와 같이 실학파의 경향을 4그룹으로 구분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설명인지 모르겠다.

- 대원군은 조선시대에 4명이 있었으므로, 고종의 아버지를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이라고 해야 한다.

- 고종의 부인, 즉 명성황후를 Queen Min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민비를 번역한 것이다. 민비라는 호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왕비들에

대해선 왕후라는 호칭을 붙여서 불렀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된 후 부인에게 명성황후란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Queen Myöngsöng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은 한국전쟁(Korean War)편에서 전쟁의 전개와 주요한 개별 전투,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포로송환의 문제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전의 집필자(Allan R. Millett)와 역사편 한국전쟁의 집필자(Bae-ho Hahn)가 달라서인지 전쟁 사상자의 숫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군인/민간인 총 사상자 수는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 유엔의 군인 사상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반면, 중국과 북한의 군인 전사자 숫자가 역사 편에서는 더 크게 나와 있고 남한의 군인 전사자 수는 너무 적게 나와 있다.

한국전쟁		한국역사
북한군인 사망/실종자 : 406,000	↔	520,000
중국군인 사망/실종자 : 600,000	↔	900,000
남한군인 사망/실종자 : 217,000	↔	47,000
미군 사망/실종자 : 36,568	↔	37,000
유엔군 사망/실종자 : 3,063	↔	3,194
북한의 사상자 합계 : 2,506,000	↔	2,500,000
남한의 사상자 합계 : 1,646,000	↔	1,313,000

Anarchism in Korea (한국의 무정부주의)

Anarchism

Anarchism in East Asia

Anarchism in Vietnam and Korea (베트남과 한국의 무정부주의)

내용분석

한국의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5줄에 걸쳐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이 사상을 흡수했으며,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사상을 독립운동과 연관성 하에서 어떻게 수용, 이용했는지 서술되어 있다.

오류

- 신채호를 *Shin Chae-ho*로 표기하고 있다. MR 방식에 따르면 *Shin Ch'ae-ho*로 표기해야 한다.

Buddhism in Korea (한국의 불교)

Buddhism

Historical development

Korea and Japan

Korea

내용분석

불교의 한국 전래,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해방 이후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 전반에 관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불교가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친 역사와 규모에 비하면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한 감이 있다.

명백한 오류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불교 관련 용어가 모두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h'an (선), T'ien-t'ai (천태), Hua-yen (화엄) 등이다. 한국불교에 관한 항목이 불교의 발흥부터 전 세계의 불교 역사 등을 논의하는 큰 항목 아래 등장하고, 중국 불교에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불교 항목 전체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Ch'an이나 T'ien-t'ai가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내의 상황을 서술할 때는 선, 천태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최소한 중국식 표기와 병기하는 것이 맞다.

- 일제 강점 이후의 불교에 대한 설명은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없거나 낱앙스가 좀 다르다. 그 부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 (1910) 이전의 10년간 한국 불교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런 노력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불교 "선교사들"의 그 이후 노력들은 대체로 수포로 돌아갔다." 일제 강점 이후 총독부는 한국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찰령에 의해 체제를 만들고 관리를 한 것이지 한국 불교의 통합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New Religious Movement in Korea (한국의 신종교운동)

New Religious Movement (신종교운동)

The East

Korea

내용분석

한국의 신종교에 대해서 두 문단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 문단은 주로 19세기 말부터 1980년대까지 종교와 무관한 한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나머지 한 문단에도 신종교운동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중교와 통일교에 관한 간단한 내용뿐이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신종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류

- Tajong-gyo (대중교) -> Taejong-gyo가 맞는 표기이다.
- Tangun (단군) -> Tan'gun이 맞는 표기이다. 당운으로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Na Chul (나철) -> Na Ch'ŏl

Confucianism in Korea (한국의 유교)

Confucianism (유교)

The Confucian revival

The age of Confucianism: Yi-dynasty Korea, Tokugawa Japan, and Ch'ing China

(유교의 시대: 이조 한국, 토쿠가와 일본, 그리고 청 중국)

내용분석

유교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조선, 토쿠가와 일본, 청대 중국에서의 유교를 하나의 항목으로 서술한다. 전 세계 모든 왕조 중에서 조선이 가장 철저히 유교화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 유교의 내용으로는 이퇴계가 주희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내용, 기대승과의 4단 7정 논쟁, 퇴계의 해석에 도전한 이율곡,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나라 전체가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 등이 있다.

"현대의 변용" 항목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발전을 유교사상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내용상 특별한 오류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유교사상이 한국, 특히 조선에 미친 영향에 비하면 16세기의 세 학자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나오는 것이 아쉽다.

오류

- Ki Taesung (기대승) -> Ki Taesŭng.

Korean War (한국전쟁)

내용분석

전쟁의 발발과 경과, 휴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쟁의 실제적인 전개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한국전쟁의 배경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전쟁의 발발부터 북한의 초기 공세와 남한의 대응,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남한과 유엔군의 북진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투 상황(전투 지역, 투입된 부대, 사령관, 전세, 사상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중국의 참전과 총 7차례로 이어지는 중국의 공세, 소강상태에서 휴전회담에 이르기까지 개개의 전투 상황 및 휴전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휴전회담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포로송환의 문제(쟁점이 되었던 양측의 입장과 포로의 숫자, 포로수용소의 상황)를 묘사한 뒤 휴전협정의 타결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끝을 맺고 있다.

- 제시된 모든 한반도 지도에서 동해 (East Sea)는 Sea of Japan(일본해)과 괄호 속의 East Sea(동해)로 이중 표기되어 있다.

오류

- 전쟁 전 한국내의 정치 상황(김일성이 속한 마르크스 혁명주의 세력과 이승만이 속해 있던 국수 민족주의 세력, 한반도의 분단,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의 게릴라전)을 간단하게 묘사하되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소련이나 미국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 한국전쟁의 전사자 수치는 미국과 남한의 추정을 따라 국가별로 수치의 범위를 보여주면서 그 중 최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표) 이는 각종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서문에서 한국전쟁의 총 전사자를 최소 250만으로 제시하고 표에서 나라별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전투 사상자 >

	북한	남한	중국	미국	유엔군
사망/실종 민간인	600,000	1,000,000			
사망/실종 군인	406,000	217,000	600,000	36,568	3,063
부상 군인	1,500,000	429,000	716,000	103,284	11,817

- 한국전쟁 중 여러 차례 거듭되는 서울, 평양의 함락과 수복을 설명하면서 제시된 날짜가 다른 자료들(한국판 브리태니커)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 북한군의 침공 : 1950년 6월 25일
- 북한군의 서울 점령 : 1950년 6월 28일
- 유엔군의 서울 입성 : 1950년 9월 25일 → (유엔의 9월 28일 서울 수복)과 비교
- 미군의 평양 탈환 : 1950년 10월 19일 → (유엔의 10월 20일 평양 탈환)과 비교
- 중국의 서울 재점령 : 1950년 12월 31일 ~ 1951년 1월 5일 → (중국의 1월 4일 서울점령)과 비교
- 유엔군의 서울 재탈환 : 1950년 1월
- 휴전협정 조인 : 1953년 7월 27일

The Korean War (한국전쟁)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

Cold War in the Middle East and Asia (중동과 아시아의 냉전)

한국에서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1945년 해방에서 1950년 전쟁발발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38선에 의한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 1948년 남북한 각각의 정부 설립, 이후 1949년 10월과 1950년 6월 사이 38선 근처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을 언급했다.

애치슨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해석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당시의 기밀문서에 근거해서 재분석하고 있다. 애치슨이 비록 미국의 방위선에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긴 했지만 미국무부는 남한을 일본 방어에 중대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애치슨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의도가 없다는 의미였고 남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 이에 고무된 이승만이 북한을 침입할지도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보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애치슨의 의도는 전쟁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만약 전쟁이 발생할 시에는 공산주의자에게 비난이 돌아가게끔 조치를 취해 놓으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스탈린과 북한의 입장. 스탈린이 왜 김일성의 공격을 용인했느냐에 대해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스탈린이 북한과 중국을 통제 하에 두기 위해 혹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내기 위해 김일성의 침략을 고무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김일성이 남침을 제안했고 스탈린이 이를 승인했다.

트루만의 대응. 미국은 한국을 봉쇄정책의 시험장으로 간주하고 재빨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해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집단안전보장을 확인 받는 한편 맥아더에게 일본 주둔군을 한국에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트루만의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16개의 유엔회원국이 군대를 파견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과 유엔군의 압록강까지의 진격,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한 유엔군의 38선 이남으로의 후퇴, 이듬해 유엔군의 서울 탈환과 38선 회복. 맥아더의 전쟁확대요구에 대해 미국은 확대전과 핵무기의 사용을 강하게 거부했다.

한국전쟁의 영향. 미국은 스탈린의 위협에 대비해 유럽에 추가의 군대를 파견했고 자국의 핵무장과 재군비를 촉구하는 NSC-68의 실행을 서둘렀다.

맥아더의 해임. 트루만의 평화협상 정책에 반발하던 맥아더는 해임되었고 확대전이 아닌 제한전쟁의 타당성이 논의되었다.

휴전회담. 휴전협상의 쟁점은 남북한의 경계 설정과 전쟁포로의 송환 문제에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간의 적대감은 지속되었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트루만과 아이젠하워는 중국과 소련의 분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방법이 협상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력에 있다고 보았다.

- 한국전쟁을 국제관계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별다른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 단, 애치슨의 방위전선에 대한 해석은 어떤 기밀문서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여부나 추론의 타당성이 확실치 않다.

The Korean War (한국전쟁)

United States

History

The United States since 1945

내용분석

1950년 6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자 트루만은 즉시 남한을 방어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요청에 의해 국제연합은 북한에 대항해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하에 북한을 중국과의 국경까지 밀어붙였다. 중국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다시 남한으로 밀려났지만 곧이어 전선은 38선을 따라 고정되고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맥아더는 미국정책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경질되었다. 회담은 성과 없이 지연되다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후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 제한 전쟁(limited war)에서 미국은 14만 2천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었는데 그 대부분은 중국의 참전 이후에 입은 피해였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보호와 인도차이나의 프랑스에 대한 원조를 확대했다. 1950년 12월 트루만이 한국 뿐 아니라 유럽의 미군 주둔을 확대하기 위해 재무장 긴급계획을 요청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비는 한국전쟁 이전보다 네 배로 증가한 53,6 billion 달러에 달했다. (전문 번역에 해당함)

- 한국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고 별다른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

Hangul (한글)

한글의 다른 명칭을 언문이라 소개하고 한국어 문자 체계의 기본 구조(14 자음과 10 모음)와 창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1945년까지 상류층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오류

- 한글을 언문이라 칭하는 반면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빠져있다.

Grand National Party (한나라당)

1997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남한의 보수 정당. 당시 신한국당은 금융스캔들과 당원들의 탈당으로 인한 위기에서 회복 중이었고 민주당은 199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함으로써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나라당은 초창기 국회 내 다수당임에도 의장 선출 투표에 패함으로써 지도부 사임과 당원들의 대거 탈당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 2000년 선거의 승리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뒤 이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에게 패배했다.

- 한나라당의 정치사를 서술하면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1998년 의장 선출 투표에 실패한 후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Han Yongun (한용운)

내용분석

한용운의 불교 지도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간단한 서술 중에서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동학혁명에의 참가, 불교 공부 시작, 출가, 한국 불교의 쇄신 노력,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으로 시집 '님의 침묵'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류

- 그의 이름을 Yongu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MR 방식에 따른 표기법과 다른 알파벳 표기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Yong-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설악산을 Mount Solok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Mount Sörak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그가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설악산으로 도망쳤다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그 이후 출가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한글판이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는 그가 동학혁명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일부 자료에서 그가 동학혁명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그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학혁명과 한용운의 관련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 그의 대표적 저술인 '불교유신론'을 1909년에 출판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우선 책의 정확한 이름은 '조선불교유신론'이며, 1910년에 탈고하여 1913년에 출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

Ho Ryong (허련)

내용분석

조선 말기의 대표적 화가인 허련은 중국 남종화의 전통을 이었으며, 서예에 서는 추사체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오류

- 이름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Ho Ryong -> Hŏ Ryŏn.

UNKRA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내용분석

한국전쟁에서 파괴된 남한 경제의 재건을 목적으로 1950년에 설립된 기구. 운크라의 관심은 남한의 경제재건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문제에도 집중되었다. 34개의 유엔 회원국과 5개의 비회원국이 1억 4,850만 달러를 운크라에 기부했고 1958년 7월 1일에 활동을 종료했다.

38th parallel (38도선)

내용분석

38선의 설정 과정과 이후 고착화 과정에 관해 간단히 서술한 다음, 한국 전쟁, 그리고 종전 이후와 38선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 문단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판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며,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III. 결론 및 평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ædia Britannica)의 한국 관련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앞으로 수정·보완의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목 선정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근현대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전체 역사의 대부분이 매우 간략하게만 기술되어 있다.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있는 인물의 수가 총 41명인데, 그 중 조선시대 이전의 인물은 6명뿐이며, 그것도 모두 승려들이다. 조선시대를 포함한 그 이후 인물들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은 8명 모두, 그리고 김재규까지도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조선시대 왕 중에서는 세종과 고종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이전 시대에는 어떤 왕도 독립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백과사전이 주요 독자로 구미권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난 이후, 즉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난 이후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관계가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야만 현재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대적 쏠림 현상이 아쉽다.

위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분야별 쏠림 현상도 뚜렷이 드러난다. 조선에서 대한민국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 모두 23명인데, 그 중 화가나 서예가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12명이나 된다. 전 시기의 문화예술 분야를 살펴보면, 음악가는 현대의 윤이상 한 명뿐이며, 화가도 위에 언급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근세 이전의 시기에서는 한 명도 없다. 문학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용운을 문학가에 포함시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그의 독립운동가와 불교 혁신가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미술을 전공한 학자가 한국 관련 항목을 선정하는 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고려 후기부터 한국의 정치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조선중기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유교, 혹은 유학의 사상가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불교 관련 인물이 6명이나 독립 항목으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문제점이 더욱 뚜렷이 인식된다. 또한 조선 이전 시기에 불교의 영향력이 컸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접 관련되는 인물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거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거나 통일을 이룩한 왕이나 장수가 이순신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또한 중세 이전 시기의 한국 관련 항목 선정에 불교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강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종교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기타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연원이 깊은 것은 불교이고, 다음으로 유교, 천주교, 개신교 등을 들 수 있고, 개신교와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소위 ‘민족종교’가 있다. 그런데, 불교 관련 항목은 앞서 지적한 6명의 인물 이외에 한용운과 팔관회가 있다. 천주교 관련 항목도 성 김대건, 정약종, 서학 등 3개가 있다. 그러나 유교 관련 항목은 서원밖에 없고, 개신교 관련 항목은 전혀 없다. 이에 비해 민족종교로는 천도교 관련 항목이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3개이고, 보천교가 있다. 조선 말기, 일제 초기에 동학 또는 천도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정작 동학이나 천도교 항목은 없고, 1대~3대 교주만 인물로 등장한다. 보천교 역시 일제 초기에 상당히 큰 교세를 자랑하긴 했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볼 때 독립항목으로 존재하기에는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전통 신앙에 해당하는 항목도 장승, 풍수지리설, 무당, 산신 등 4개나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항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에 관한 한 일제의 한국 통치, 한국전쟁과 정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제통치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3.1 운동, 신간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 관련 항목으로는 한

국전쟁을 직접 다룬 항목이 3개, 38도선, UN한국부흥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 정치로는 8명의 전현직 대통령, 김재규, 김일성, 김정일,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이 있다. 그런데, 정당을 논의하면서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그리고 구 민주당 혹은 신민당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자유당과 민주공화당은 여당으로 가장 오래 존재했던 두 정당이며, 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주요 야당의 뿌리가 구 민주당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서술경향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한글판 브리태니커와 비교해보면, 일단 분량이 항목별로 대부분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독자와 출판의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을 축소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싣고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신라의 귀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골품제도를 언급하지 않는다거나, 세종의 업적으로 한글 창제와 불교 억압의 단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다. 고려의 건국 시기를 신라까지 합병한 시점으로 잡고 있다거나, 통일신라 항목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이나 불국사가 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등의 오류도 발견된다. 이는 많은 항목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집필된 내용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명백한 오류도 꽤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한국어 알파벳 표기의 오류이다. MR 방식에 의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인물의 경우 출생지, 출생년도, 사망년도 등 단순한 사실의 오류도 가끔 발견된다. 이런 오류들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오류들이 존재함으로써 백과사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의 역사, 한국전쟁, 한글, 남한 등 비교적 상세하고 전문적인 항목들에는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알파벳 표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오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한두 가지 참고자료만 찾아보아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서술 내용에서 오히려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부주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한국에 관한 항목

을 서술할 때 한글판 브리태니커를 참고했으면 범하지 않았을 오류도 상당히 발견되는 점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상호참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영문판 브리태니커에서 상당히 많은 항목에 걸쳐 한국을 소개하고 있고, 일부 항목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 사회와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의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항목 중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되, 일부 항목은 서술 분량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서술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서술의 방향이나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교정이 필요하다. 한국어 알파벳 표기에 많은 오류가 있고, 단순 사실의 서술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은 교정 작업만 충실히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브리태니커의 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한국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